흙·녹 제거하니 금빛 미남보살 자태가…

국립문화재硏,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보존처리 완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15년 10월 양양 선림원지 발굴장에서 통일신라 추정 금동보살입상이 출토됐다. 대좌를 포함해 50cm에 달하는 대형 금동보살입상은 그 형태가 온전하고 출토지가 확인되는 불상 중 가장 컸다. 화려하게 조각한 대좌와 광배도 그대로 남아있어 출토 당시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땅에 묻혀 있던 만큼 금동보살입상 표면에는 흙과 청동녹이 뒤엉켜 붙어 있었고, 오른쪽 발목은 부러져 대좌(臺座)와 분리돼 있었다. 광배는 여러 조각으로 파손돼 긴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는 발굴조사를 수행한 (재)한빛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금동보살입상을 긴급 인수해 보존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5년 후, 보존처리가 완료된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의 자태가 공개됐다. 보살상 표면에 엉켜있던 흙과 녹은 말끔히 제거돼 본래 금빛과 형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녹에 가려져 있던 수염과 눈의 먹선도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강원도 양양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대 금동보살입상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고 2월 4일 발표하고 그 모습을 일반에 공개했다.

금동보살입상을 인수 받은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실시했다.

금동보살입상의 정밀한 보존상태 파악을 위해 X-선 투과 조사·내시경 조사·재질 분석 등 과학적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녹 제거, 강화처리, 접합 복원 등 보존처리를 했다.

5년간 보존 처리 작업 진행
출토시 뒤엉킨 흙·녹 제거
눈, 수염 선명 먹선 드러나
금빛·본래 형태를 되살려
제작 연대 7~9세기 확인돼

조사결과, 금동보살입상은 구리합금으로 형태를 만들고 표면을 도금한 금동재질이었고, 그 위에는 초록색의 청동녹이 덮여 있었다.

본래 색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하며 녹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을 해야 했다. 이 같은 지난한 작업을 통해 금동보살입상은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됐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도금층은 선명하게 드러났고, 도금층 위에 섬세하게 그려진 먹선도 찾을 수 있었다"면서 "먹으로 그린 부분은 눈썹, 눈(눈매·눈동자), 수염, 대좌의 투각된 안상 테두리 등 모두 4곳에서 확인됐다. 특히, 현미경 확대 관찰을 통해 청동녹 아래에 먹으로 그려진 눈동자까지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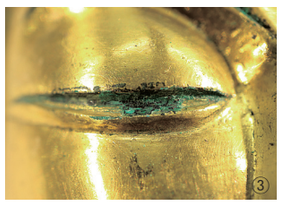
연구 조사를 통해 금동보살입상의 제작 연대를 확인한 것도 큰 성과다. 출토 당시 명문 조각은 발견되지 못했고, 내부와 표면에서 종이조각과 금박 종이조각만이 확인됐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종이를 섬유 분석해 모두 닥나무 인피섬유의 닥종이로 확인했고,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7~9세기의 절대연대 자료를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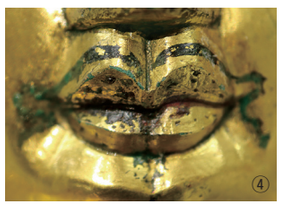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804년(애장왕 5년) 동종이 제작되는 등 선림원이 활발히 경영되던 시기를 고려할 때, 금동보살입상 역시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작 기법도 확인됐다. X-선 투과조사 결과, 금동보살입상은 하나의 개체로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쪽 팔 뒤에서 주조구멍(molding hole) 흔적이 확인됐다. 이 주조구멍은 주물이 완성된 이후에 금속판으로 구멍을 막고 도금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현재 보존처리가 완료된 금동보살입상의 부러진 오른쪽 발목은 아쉽게도 대좌와 접합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올해 3D 스캔 데이터와 3D 프린트 등 첨단기법을 이용한 디지털 복원으로 금동보살입상을 대좌에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③


④


②

① 출토 당시 양양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모습.
② 보존처리를 마친 금동보살입상 전체 구성 모습. 본래의 금빛과 형태가 완벽하게 복원 됐다.
③ 보존처리 과정서 확인된 오른쪽 눈동자 먹선.
④ 녹과 흙을 제거하니 먹으로 그린 수염도 확인됐다.

불교학 국제학술지 IJBTC 30권 2호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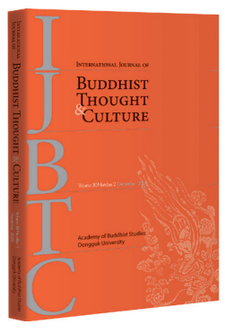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서… '다라니와 진언' 특집

국내 첫 불교학 전문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 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 30권 2호가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국제 영문 저널 IJBTC 30권 2호를 최근 발행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IJBTC(공동편집장 동국대 김종욱, 브링엄영대 리차드 맥브라이드)는 인도, 미국, 태국, 대만,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몽골 등 8개국의 해외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영문 발행 불교학 전문학술지로 연2회(6월, 12월) 발간된다.

IJBTC Vol.30, No.2의 특집 주제는 '다라니와 진언의 의례, 예술 그리고 문헌'으로 △Arhaṃ과 Arhraṃ 중 깨달은 영혼을 위한 자이나 만트라는 무엇인가(엘렌 고우, 미국 에모리대) △ 건축 공간에 구현된 의례: 요(遼)의 불전존승다라니와 응현목탑(김연미, 이화여대) △캄보디아의 불전존승다라니: 의례와 신화(올리비에 드 베농, 프랑스 국립국동연구소) △ 불전존승다라니: 네팔 사본에 기초한 산스크리트 문헌의 완성(게르겔 히다스, 영국 대영박물관) △ 증오의 연대 끊기: 돈황 다라니 문헌들(임레 갈람보, 영국 캠브리지대) 총 5편의 특집 논문이 수록됐다. 이들 논문은 그동안 신앙과 문화재로서만 취급됐던 다라니를 철학적이고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집논문 외에도 일반 연구논문으로 니콜라스 존스 미국 앨라배마주립대 교수의 '빠알리 불교의 관대한 행위와 존중에 대한 고찰' 등의 논문들과 최신 연구 성과를 검토한 2편의 서평도 함께 게재됐다.

한편, IJBTC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KCI)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등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불교학의 학제적 연구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8년에는 톰슨로이터사의 새 데이터베이스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와 미국신학도서관협회의 아틀라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Atla DB)에도 색인 등재 선정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제4회 성운학술상 논문 공모

2월 28일까지… 염불신앙 관련 주제

한국불교의 염불신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제정된 제4회 성운학술상 논문을 모집한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제4회 성운학술상을 공모한다. 논문 마감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공모 논문 주제는 '경전 상에 나타난 염불신앙에 대한 고찰'과 '염불신앙을 통한 재가자와 출가자의 가피 사례 연구'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0만원(1명), 우수상 300만원(1명), 장려상 100만원(2명)의 연구비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5월 14일에 열릴 예정인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성운학술상은 제22대 회장 성운 스님의 지원에 따라 한국불교의 염불신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고 그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춘계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하고 있다. 논문 주제는 불교 전반에 대해 응모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응모자는 자유주제 공모발표의 논문계획서는 2월 21일까지 hanbulhak@daum.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출강 및 통신 2021학년도 30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0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1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